

# WORLD DAY of the SICK 2

www.worlddayofthesick.or.kr



## 분과 토론

2월 9일(금) 학술의 날 마지막 행사로 분과 토론을 실시하였다. 국내외 가톨릭 의료계 종사자들이 모여 현대 의료계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다음 사항에 대해 분과별로 토론을 벌였다.

- 에이즈 · 식물인간 · 안락사 · 말기암 · 신생아 중추신경계 기형 등 5개 분과 -



인간으로서 평화롭고도 존엄한 죽음을, 특히 그리스도인으로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권리는 매우 중요하데, 오늘날 의학의 발전과 더불어 지나친 의학적인 열정이나 집착으로 의미없는 과잉 치료로 이러한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권리를 박탈당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이러한 의미없는 치료의 중단과 안락사는 전혀 다른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어떠한 치료가 의미 없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치료자의 의학적인 지식과 경험 그리고 양심적인 판단이 중요하며 쉽지 않은 문제이므로 가능하다면 대형병원이나 대학 병원에 이런 것을 협의할 위원회가 설치되어 종교인, 치료자 및 가족이 함께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갈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고영초 교수 건국대학교병원 신경외과

